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마지막 각오로 쇄신”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 보여준 용기에 감사”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15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대책도 밝혔다. 이 회장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앞서 사과문을 낭독했다. 체육계는 성폭력 문제로 큰 충격을 앓고 있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심석희가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여자 유도선수였던 신유용도 과거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 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용기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지원과 성원, 격려를 해 준 국민 여러분과 후원해준 정부 기업 여러분들에게도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한체육회는 내부 관계자들이 징계 및 상벌에 관여하면서 자행된 관행과 병폐에 대해 자정 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조직 은폐나 묵인, 방조 시 해당 연맹을 즉각 퇴출시키겠다.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며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 또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체육 단체 및 국가별 체육회(NOC)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행위를 한 지도자들을 국내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범위하고 철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분했다.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정상화시키겠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체육계의 기조인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도 시사했다. “정부와 협의 하에 엘리트 체육 육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도제식 훈련의 근본적 개선책을 만들겠다”면서 “정부 시·도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범 영구제명, 1년만에 확정 “해외활동 방지 ISU에 건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에게 폭행·성폭행을 가한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가 1년 만에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송파구 빙상연맹 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조진 코치 성폭행 혐의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먼저 안건에 오른 것은 조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 확정 절차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월16일 심석희가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조진 코치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같은 달 2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진 코치를 영구제명 처분했다. 하지만 이 징계는 실효가 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진 코치의 징계를 재심의하라고 했다. 특정감사 결과 빙상연맹이 규정상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운영하게 돼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2017년 5월부터 8명으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후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이 논의되면서 조진 코치 징계 재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난해 10

월 이후에도 다른 안건을 논의하는 조진 코치의 징계 재심의는 징계 결정 1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성폭력·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실제로 조진 코치는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후 중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스



손흥민, 또 인종차별 피해...영국축구협회까지 조사 나섰다

ESPN “FA도 조사 위해 자료 수집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또 다시 인종 차별 피해를 입었다. 소속팀은 물론 영국축구협회(FA)까지 조사에 나선 전망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현지 언론은 15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손흥민을 향한 인종 차별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14일 영국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18~2019 EPL 22라운드 경기 도중 인종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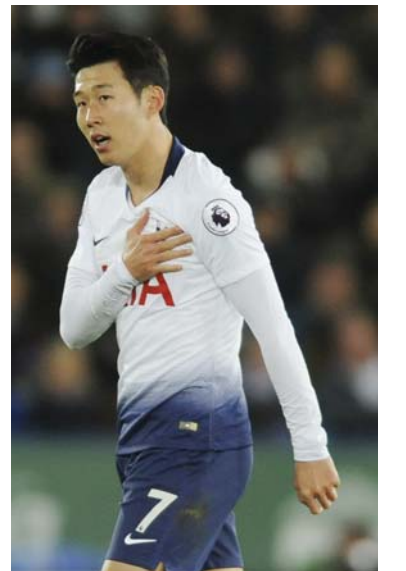
축구매체 골닷컴의 제임스 더킨스 기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 “15년간 축구계에서 인종 차별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심했다. 끔찍했다”면서 “욕설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FA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SPN은 FA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의혹 조사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토트넘 측은 “인종차별적, 반사회적 행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손흥민을 향한 인종 차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0일에는 트위터에 손흥민을 겨냥한 인



종차별성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당시 토트넘은 영상에 등장한 팬들을 즉각 퇴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출범 “강력한 영웅군단 만들 것”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 출범식에서 키움히어로즈의 선수들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원태, 서건창, 박병호, 김성성, 이정후 선수.

‘영웅군단’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키움 히어로즈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키움증권과 함께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출범식 ‘뉴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New Heroes Kiwoom Hero)’를 열었다. 키움 히어로즈 임직원과 선수단을 비롯해 키움증권, KBO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찬 KBO 총재는 “히어로즈는 11년의 시즌을 치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력을 보여줬다. 더 큰 꿈을

키우는 히어로즈의 내일을 응원한다.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키움증권과 히어로즈 역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키움증권 이현 대표이사는 “키움과 히어로즈가 함께 멋진 키스톤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다. 한국 프로야구 발전과 팬들에게 키움 히어로즈가 멋진 승부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키움 히어로즈 박준상 대표이사는 “키움증권과 함께 감동적인 스토

리를 만들어주고자 한다. 올해 새로운 베이징스폰서를 맞이해 더욱 더 강력한 영웅군단으로 돌아오겠다. 매 순간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히어로즈를 이끌어가는 선수들도 당찬 각오를 밝혔다.

4번타자 박병호는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노력하겠다. 키움 히어로즈로 올해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 키움증권과 히어로즈가 힘을 합쳐서 올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건창은 “히어로즈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돼 감회가 새롭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많았지만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 팀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모든 선수들이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정후는 “지난해 부상이 많았다. 올해는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물리력에 신경쓰겠다. 아직 힘이 부족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전했다.

김성성은 “항상 목표는 우승이다. 새로운 키움 히어로즈에서 선배들 잘 따라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최원태는 “올해는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다”며 부지를 불태웠다.

뉴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